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 13,8)

† 찬미예수님

새봄과 함께 맞이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또 다른 그리스도로 여기고

부활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3. 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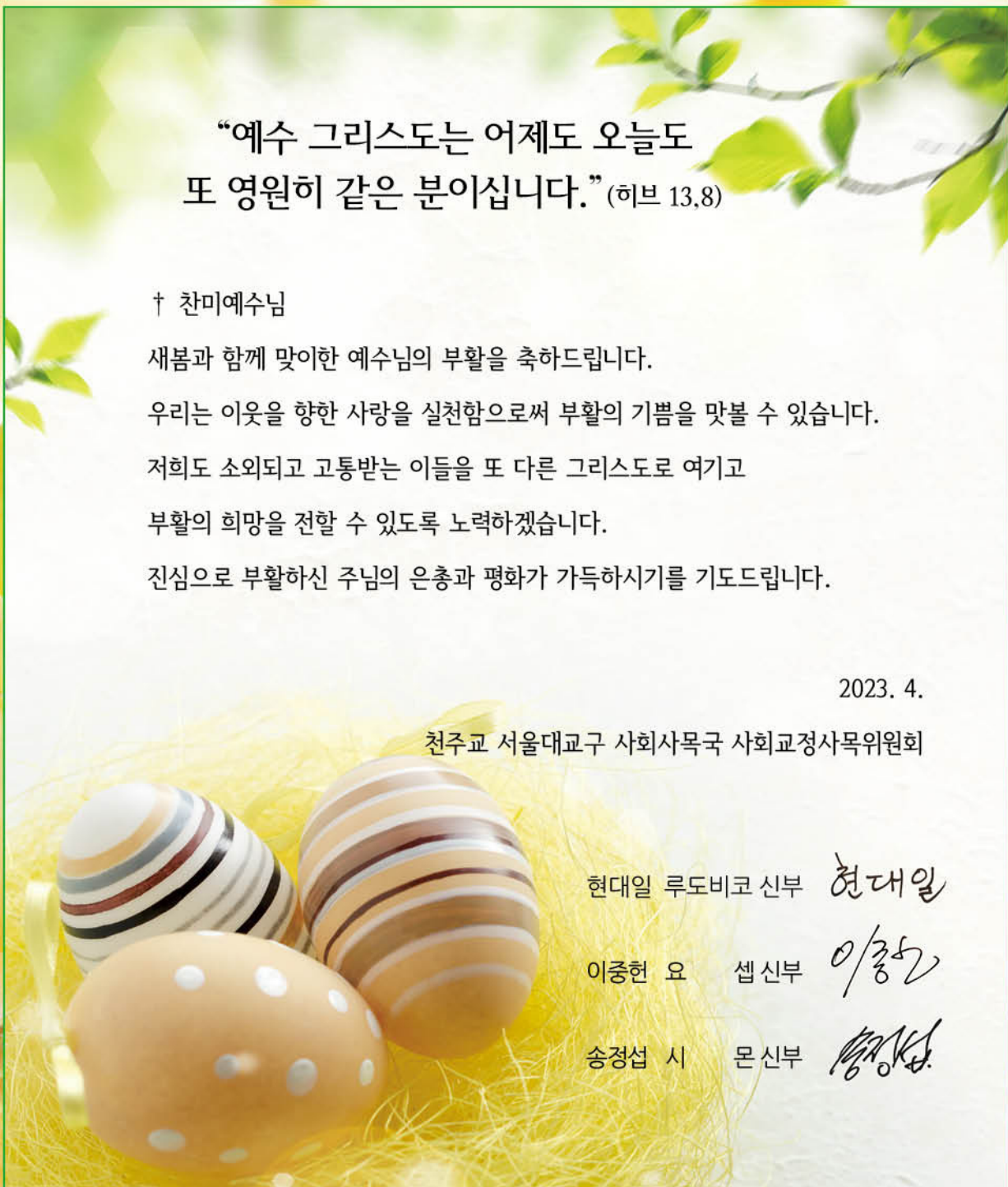
현대일

이중헌 요셉 신부

이중헌

송정섭 시몬 신부

송정섭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



2월 18일(토) 교정사목센터에서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를 비롯한 이중헌 요셉 신부, 송정섭 시몬 신부, 운영위원 8명과 직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 분야 운영위원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넓힐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2차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3월 6일(월)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2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장인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를 비롯한 이사, 감사, 정회원, 후원회원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신입이사 선임 건과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 심의 안건들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유경춘 주교님의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특별히 축일을 맞이한 이중헌 요셉 신부님 축일 축하식과 10년 10명, 20년 5명, 30년 1명의 장기 봉사자에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기간 사회교정사목을 위해 헌신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훈련원 세례식



3월 7일(화)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7명, 10일(금) 훈련원 2명의 세례식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미사에 함께한 모든 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축하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옳았습니다.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은 것일까? 뭐하러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풀고 내어주며 사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는데,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사람을 믿고 함께 있어 주며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내 기준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잘해주고 도와줘봤자 소용없다’라며 실망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완전하지는 못했어도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세상을 모르고 바보같이 살았었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약성경 토빗기의 이야기를 읽어 봅니다. 한평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던 토빗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갔을 때도 죽어가는 이들을 물어주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자선을 베풀며 하느님을 잊지 않으려 애썼던 토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토빗에게 돌아오는 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닌, 더한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에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미련하게 산다’라는 식의 미움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날아가던 참새의 똥에 맞아 눈까지 멀게 됩니다. 아내마저도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라며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토빗도 “이제 주님, 제 목숨을 앗아 가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며 흔들립니다. 착하게 살아왔던 토빗만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라파엘 천사의 조언에 따라 토빗의 아들이 구해 온 쓸모없어 보이는 물고기의 쓸개로 토빗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선하게 살아온 토빗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뭐하러 이렇게 사나? 어차피 나 하나 이리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어차피 내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라며 적당히 마음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토빗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닌, 바로 당신이 하느님 나라를 얻었고 당신이 하느님을 소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방식과 하느님의 관점을 따라 사는 것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결국 ‘빛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의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때로는 그렇게 사느라 실패한 듯 보이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이 결국은 옳았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칠레의 시인이었던 파블로 네루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세상의 모든 꽃을 꺾을 수 있다. 하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꽃 한 송이 꺾이는 그 아픔이 결코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인의 말처럼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사람들’인 우리의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

1. 개요

- 일 시 : 2023년 2월 18일(토) 13:00~17:00
- 장 소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2명(신부님 3명, 운영위원 8명, 직원 1명)
- 주요내용
 - 2023년 사업 분야 운영위원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업무영역에서 상호이해 부족 등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넓힐 수 있는 대화와 친교의 장 마련

2. 워크숍 연구과제

구분	연구과제	과제 발표자
1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체계화 및 커리큘럼 강화	김성일 운영위원장
2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이후 사후관리 연계 방안	이형일 운영위원
3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창업기업의 부실화 감축 방안 - 멘토링 시스템 활성화를 중심으로	전구중 운영위원
4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한 생각	김재범 운영위원
5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결과	김일호 본부장

3. 워크숍 연구과제 발제 및 토론 결과

- 연구과제 발제 및 토론 결과 운영위원 워크숍 의제 발굴

구분	발굴 의제	세부 사항
1	창업자의 개념 및 범위 변경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경영개선), 재창업자(재도약창업자)
2	대상자 선별지원과 연간 목표 설정	
3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수료자 우대 방안	
4	프로세서 구체화로 심사기준과 지원기준 마련	
5	출소예정자 창업경연대회 시행 및 우수자 선발	
6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확대 방안	교육 대상 수용자 확대, 여성 수용자
7	멘토단 운영 POOL 운영 구성	봉사자 확대
8	출소자와 수용자 가족 임대보증금 자금 지원	규정 신설
9	창업 교육 일부 과목 집중 교육	세무회계, 창업 특성화 교육
10	창업자금 대출대상자 기준 조정	

4. TFT 구성

- TFT 명칭 : 워크숍 의제 발굴 TFT
- TFT 구성
 - TFT 팀장 : 이중헌 부위원장 신부
 - TFT 팀원 : 김성일 운영위원장, 전구중 운영위원, 이형일 운영위원, 모세종 운영위원, 김일호 본부장
- TFT 업무
 - 2023년 2월 18일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에 발제한 연구과제 토론 결과 의제 발굴된 건에 대하여 구체적 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운영위원회 논의 후 결과에 따라 기쁨과희망은행 운영 및 규정 신설 등 업무에 적용
- TFT 운영 기간 : 2023년 3월 20일 ~ 2023년 12월 31일

5. 평가

- 지난 워크숍과 달리 1부와 2부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현대일 위원장 신부님의 인사말과 신임 운영위원과 기존 운영위원의 인사에 이어 1부에서는 연구과제별로 발제자들이 순서대로 발제하였으며 휴식 후 2부에서는 발제한 과제에 관한 운영위원들의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과 애정이 담긴 토론이 있었으며 김성일 운영위원장의 해설 및 진행으로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연구과제 토론에 의한 의제 정리로 운영위원 워크숍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되었으며 추후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C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박종옥 요안나_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대표 봉사자



코로나19로 다른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구치소 남사는 2년 반 동안 미사와 교리가 없었습니다. 언제 교정시설 봉사가 다시 시작될지 몰라서 화요일을 비워놓은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제한적이지만, 22년 5월부터 미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봉사인데 오랜만에 하려니 얼마나 낯설고 어색한 지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7년 전, 봉사자 연수를 마치고 처음 서울남부구치소로 발령받았을 당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새내기 같은 풋풋함과 열정을 가진 봉사자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제가 여기에 왔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타성에 젖어 버린 저의 봉사 태도를 바꾸어 그분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새 사람, 새 봉사자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일이 되어버린 봉사에서, 참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의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멘



제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신부님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그 덕분에 저도 세례를 받는 날이 고 앞으로 다가옵니다.
 어릴 적엔 교회를 다녔고, 군대에서는 기독교 세례를 받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분명히 하느님은 존재하신다는 작은 믿음의 씨앗은 늘
 품고 다녔고, 기회가 되면 다시 교회나 성당에 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려
 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드디어 제 다짐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교도소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지만요. 교인들은 종교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종파를 구별하여 서로 맞고 틀림을
 논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하느님과 예수님은 제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먼저
 보여 주신 훌륭한 스승님으로만 보입니다. 이제서 교리 공부를 마치고 천주교가 지나온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제가... 작년에 감히 '복사'의 신성한 임무를
 맡았었던 것을 떠올리면 무척 부끄러워집니다. 한편으로는 제게 기회를 주신 신부님과 천주
 교 반장 [redacted]에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는 것이라곤,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 인간이 마땅
 히 지켜야 할 가장 올바른 도리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하나만 믿고 따르려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다 보면 제게도 또 다른 깨달음의 빛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받게 될 세례가 저 같은 대죄인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천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사랑과 축복에 꼭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느님 곁에 가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저희를 찾아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시는 신부님, 즐겁게 봉사하시는
 자매님들, 고생하시는 성가대 여러분과 담장 교도관님, 함께 미사에 임하는 동료 수용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 제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redacted] 올림



2023년 5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5월 월례미사는 후원회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야외미사로 봉헌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늘 함께하시는 후원회원 및 봉사자들이 신부님과 함께 자연 속에서 뜻깊은 미사도하시고 더불어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일시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명동 교구청 앞마당)
- ▶ 장소 : 대전교구 해미순교성지 ▶ 준비물 : 편한 복장과 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 ▶ 접수 : 4월 3일(월)~14일(금) ▶ 전화접수 : 02-921-5094
- ▶ 회비 : 1만원 (우리은행 1005-903-307477 /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1. 전화접수(성함/연락처/주민번호) 2. 실명 입금 확인 3. 접수 확정

* 주민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미사 중 성지개발과 보존을 위한 봉헌금이 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모바일 후원신청



▶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4월 1일(토) 김홍섭(바오로) 판사 기림 미사 / 명동대성당 / 10:00 / 주례 : 정순택 대주교
*법제도 안에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특히 사형수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도)했던 김홍섭(바오로) 판사를 기억하는 미사
- 4월 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0:30
- 4월 3일(월)~28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매주 월, 금) / 국군교도소
- 4월 11일(화)~13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 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 4월 19일(수)~20일(목) 해밀 야유회 / 속초
- 4월 25일(화)~27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 안양교도소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3/2/18~23/03/17)

23년 3월~ 3월에는 유가형 마리안나, 장혜원 글라라, 최경민 글로리아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